

Week 1 — My Story

! 저작권: 코렘 대표 허지현 (부단 복제나 공유를 엄격히 금합니다.)

A: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?

상황 설정: 언어교환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 중...

What are your hobbies?

B: I love finding new restaurants. Korea has so much good food.

▼ 영어가 쉬워지는 법 1. 의심하지 않기 (to find는 안돼나요?)

to, ing가 어울리는 동사는 동사마다 다 다르고, 그건 다 이해할 수 없고 원어민도 설명 못 한다.

그냥 이 문장에 익숙해지고 이대로 쓰면 자연스러워.

이해가 아니라 습득의 영역이다.

참고로 to find 됩니다.

왜 so much 에요? 왜 so many good foods는 안되나요? 보다 → 그냥 아, food는 so much food라고 해도 자연스러운거구나! 그냥 so much good 하면 됩니다. 물론 예외가 있어요~!!! 하지만 그 예외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. 95%는 자연스럽게 사용가능합니다.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.

내가 좋아하는거 다 써보자!

- 좋아하는 음악 장르
- 내가 좋아하는 영화
-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
-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

- 내 동생 BTS 짱좋아해.
- 우리 엄마 흑백요리사 짱좋아해.

▼ 예전에는 떡볶이 엄청 좋아했었는데...

I used to love 떡볶이. (but not anymore...)

I used to dance. (but not anymore...)

I used to get nervous speaking English. But after Koham's bootcamp, I got so much confidence.

여러분이 예전에는 했거나/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닌것은? 작문

I'm a big fan of spicy food.

▼ → 나 매운 음식 그렇게 안좋아해

I'm not a big fan of spicy food.

▼ → 수현이 매운 음식 그렇게 안좋아해

수현 is not a big fan of spicy food.

foreign friend: I love BTS so much! Do you like them?

Me: I don't like them. 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니까!

→ I'm not a big fan of BTS

→ I'm not a big fan of K-pop.

It's how I relieve stress.

→ My stress? 쓰지 말자. 영어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말은 덧붙일 필요가 없다.

다른 표현들: destress, unwind

It's how I destress.

It's how I unwind.

I love watching Netflix to unwind.

I love working out to destress.

The other day, my friend and I went to a restaurant / called 신당동 쭈꾸미, / which is known for its super spicy 쭈꾸미.

The other day = a few days ago

하지만 the other months, the other years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. 그냥 the other day만 “며칠 전에” 로 자주 사용해요.

문장이 길죠? 초보자라면 아래처럼 끊어서 말해도 됩니다. 전혀 상관 없어요.

1. The other day, my friend and I went to a restaurant.
2. It's called 신당동 쭈꾸미.
3. 신당동 쭈꾸미 is known for its super spicy 쭈꾸미.

“The restaurant's name is...” 쓰지말자. 🙄

It's called “신당동 쭈꾸미”

- me and my friend? 라고 하는건? 그렇게 말해도 알아는 듣지만
 - 사실 틀렸어요~ my friend를 빼다고 생각해보세요.
 - “me went to a restaurant” 은 말이 안되는 문장이죠? “I went to a restaurant”가 맞죠.
-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.. 그냥 My friend and I

▼ 영어가 쉬워지는 법 2. 표현/이디엄보다 “주어” “동사”에 목숨걸자!

go의 과거가 went인건 다 안다. 그래서 연습을 안한다. 근데 “어제 친구랑 이태원에 있는 카페에 갔어”를 말하고 싶을 때 “We went to”가 그냥 1초만에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!!! 입에 붙이지자.

여기서도 The restaurant is known for 만 빠르게 튀어나오면 뒤에 it's super spicy 쭈꾸미라고 하던, 그냥 spicy 쭈꾸미라고 하던 거의 완벽한 문장이고 말이 통하는 문장이다.

누구랑 같이 어디 간 거 다 써보자!! (동사부터 튀어나오게)

→ 엄마랑 나랑 어제 식당에 갔어

→ 동생이랑 나랑 며칠 전에 이태원에 갔어

→ 직장 동료랑 나랑 점심에 커피 사러 카페에 갔어

→ 우리 남편이랑 나랑 / 우리 와이프랑 나랑 / 내 파트너랑 나랑 어제 드라이브 갔어.

- 드라이브하다

Go for a drive, Go on a drive 엘리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거의 똑같고 잘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.

▼ 작문 레벨 업: 깔끔한 문장 만들기.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

여기에 together 붙일 필요가 있을까?

My friend and I went to a cafe together.

→ 그냥 "My friend and I went to a cafe."

My friend and I talked to each other.

→ 그냥 "My friend and I talked"

- is known for ~ 유명한거 다 써보자!

→ (본인 고향)

→ (제일 좋아하는 식당/카페)

→ (제일 좋아하는 나라)

We waited for (almost) an hour, but / it was worth it.

▼ 초보자 질문

저두 진짜 기초 문법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중인데 그만큼 진짜 열심히 더 암기하고 있어요!! 다만 기초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니 문장 만들 때fo.which.that.to등등 어떤 걸 써야할지 헷갈리는데
선배님들은 공부하실 때 ebs책을 병행하셨는지 아니면 문법 강의를 어떤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!!

→ 문법책에서 for, which, that, to 다 공부하면 실제로 쓸 수 있을거 같지요~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음! 지금 이 문장에서,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하기 위해 for를 배우고 for를 수백 번 연습했을 때 그 때 “아,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말하고싶을 땐 for를 쓰는구나” 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요. 스피킹은 이해와는 전혀 딴 영역입니다.

- 두시간이나 기다렸는데,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.
- 두시간이나 기다렸는데,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어.
- 부트캠프를 3달이나 기다렸는데,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.
- 부트캠프를 1년이나 기다렸는데,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어.
- I waited the bootcamp for three months, but it wasn't worth it.
- It's worth it.
- I paid 1,000,000won for my iPhone, but it wasn't worth it.
- That restaurant is worth the wait.

if you come to Korea, I'll take you to hidden restaurants. / that only locals know.

아을테큐두

- (내 고향)에 오면, 주민 맛집에 데려갈게. 작문해보기

take (someone) to (somewhere)

- 부모님을 “모시고” 어디 간다? → take my parents to !

▼ 나 부모님 모시고 모수 가고싶어.

I want to take my parents to 모수.

▼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.

I'm going to take my parents to a nice restaurant this weekend.

▼ 내일이 엄마 생일이야. 그래서 엄마 모시고 한남동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거야. (동사 부터!!)

Tomorrow is my mom's birthday. I'm going to take take her(mom) to a nice restaurant in 한남동.

▼ 며칠 전에, 내 동생을 데리고 "포트레이트"라는 카페에 갔어.

The other day, I took my sister to a cafe called "포트레이트"

▼ 저번주에, 부모님을 모시고 광화문에 갔어.

Last week, I took my parents to 광화문.

숙제 바로 합시다!

작문 쓸 때 한마디도 안나오세요? 스피킹도요?

→ 동사에 집중하기. 주어 동사부터 빠르게 찾기. 못찾겠으면 모르는 거예요. 인풋이 쌓이면 점 점 찾게 되실거예요.

→ 나는 5살이다~ 라고 생각하세요. 이걸 5살처럼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?

중급자들은 "쓰기"부터 하지 말고 말하기부터 하세요. 핸드폰 1분!

작문 쓰고 나서/ (코헨케어는) 원어민 쌤이 작문 고쳐주고 나서 뭘 해야 할까?

→ 연습해야죠! 나만의 영어회화책이에요. 이 세상 어떤 모든 영어회화책보다 값진 책입니다.

- 그럼 일주일에 연습해야 하는 지문이 두개가 아니라 3개~
- 작문시 Chat GPT 쓰지마세요.

공지

수요일: 부트캠프 선배와의 만남 (회사원 시간관리, 복습 방법 등)

끝~~!!!!!!

도파민...